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다

**핵심 구절: "다음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 밑에
놓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창세기 28:18,19**

**선택한 성구:
창세기 28:10-22**

오늘의 핵심 구절은 끔찍한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줍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면전에서 도망쳤습니다. 형 에서가 이삭의 축복을 빼앗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의 의도는 살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복수에 대한 자신의 속마음을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삭의 집안 식구들 중 몇몇이 이 말을

듣고 신고했습니다. 상황을 알게 된 레베카는 야곱에게 밧단아람에 있는 형 라반에게 가서 아내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레베카는 주님의 뜻이 야곱을 대신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는 이삭의 의도를 알게 된 그녀는 야곱과 다음과 같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네게 말하는 대로 하거라. 양떼에게 나가서 좋은 어린 염소 두 마리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네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주마. 그리고 그 음식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드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창세기 27:8-10

야곱은 어머니에게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내 피부는 매끈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만지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버지를 속이려는 것을 아시고 축복 대신 저주하실 거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그럼 저주가 내게 떨어지도록 내버려둬라,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나가서 염소를 잡아 오너라!" 11~13절

헛된 말은 종종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에게 "내 아들아, 당신의 저주가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고 말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다시는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던 야곱은 어느 곳에 이르렀고, 해가 지기 시작하자 잠을 청하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어떤 장소에 이르러 밤새도록 그곳에 머물렀는데 해가 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얹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그러다가 꿈을 꾸었는데, 보라, 사다리가 땅에 세워지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8:11,12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다리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니,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또한 네 자손은 땅의 티끌과 같을 것이며, 너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며, 너와 네 자손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리라."

13-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위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베개로 쓰이던 돌을 가져다가 제단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돌에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꿈의 기초가 되는 기름 부음 받은 반석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믿음의 반석이신 기름부음 받은 예수님이십니다.